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함

성경: 신 8:7-10, 12:6-7, 11-12, 18, 16:15-17, 엡 3:8, 요 4:23-24

- I. 우리가 '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을 경작하여 얻은 소산 중 일정 분량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두었기 때문이다 — 신 12:5-15, 17-18, 20-22, 26-27, 14:22-23, 15:19-20, 16:16-17.
- A.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신 8:7-10.
 - B.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과 함께 이 소산을 누렸다.
 - C.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로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누리는 것을 예표한다 — 엡 3:8.
 - D. 이 예표에 대한 신약의 성취에 따르면, 우리가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한다 — 엡 3:17-18, 골 1:27, 3:3-4, 11.
- II.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신실하게 수고한다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소산으로 얻어 교회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할 것이다 — 엡 3:8, 고전 14:26.
- A.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생활은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 풍성한 여분의 그리스도를 얻어 집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전람하는 것이다 — 고전 14:26.
 - 1.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교회 집회에 함께 모인다 — 골 1:18, 27.
 - 2.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매일 체험하는 것을 통해, 이 풍성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소산의 전람이 될 것이다 — 엡 3:8, 17-18, 골 2:6, 9-10, 17.
 - 3. 우리의 집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 주는 전람이 되어야 한다 — 히 1:3, 2:9, 14, 요일 3:8, 4:9, 15, 행 2:24, 32-33, 계 1:17하-18.
 - B. 우리가 집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산출한 그리스도, 곧 우리가 수고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함께 모여 전람하는 그리스도이다 — 골 1:12-13, 빌 3:10.
 - C.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한다면, 풍성한 여분의 그리스도를 얻어 집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전람할 것이다 — 고전 1:24, 30, 10:3-4, 14:26.
 - D. 어떤 종류의 집회를 하든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체험한 여분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한 온 우주와 원수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람하여 원수를 부끄럽게 해야 한다 — 요 4:23-24, 엡 3:10, 17, 4:15.
 - 1. 그럴 때 우리의 집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 골 3:4, 10-11.
 - 2. 이러한 교회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전람, 곧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 엡 3:21.
 - 3. 우리는 매 집회에 여분의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해야 한다 — 엡 3:8.

4.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함께 모여서 그분을 전람해야 한다 — 벧전 1:8.
- E.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하려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주님을 접촉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집회에 온다는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집회에 와야 한다 — 고전 14:26.
- F. “그리스도를 가져와 모일 때 풍성 다 바쳐 / 하나님 음식 되도록 다 주를 전람해 /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 다 주의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 영한 동변 찬송가 864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24장) 1절과 후렴.

III. 우리는 여분의 그리스도를 얻어서 교회 집회에 가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 요 4:23-24, 엡 3:21.

- A.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에 관하여 싸운 지 사십 년(1982년 기준)이 넘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아직 이기지 못했다.” —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2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247쪽.
- B. 우리가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분께 오기를 요구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교회 집회에 와야 한다 — 요 4:23-24, 엡 3:8.
- C.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수확하여 그것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며,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것이다 — 신 12:6, 16:15-17, 고전 14:26, 요 4:23-24.
- D.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여 두 손에 그리스도를 가득 담은 다음 교회 집회에 와서, 이렇게 풍성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함께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고전 10:31, 14:26, 요 4:23-24, 롬 15:6.
- E. 주님을 기념하고 아버지께 경배하기 위해 주님의 상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 산출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와야 한다 — 신 16:15-17.
1.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서로 함께, 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림으로써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 고전 14:26.
 2.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산출해야 한다. 그럴 때 여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산출한 것 중 최상의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려 그분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드릴 것이다 — 신 15:11, 18:3-4, 12:11.
- F.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고 신부가 신랑의 오심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집회에서 그리스도의 여분의 풍성을 드리도록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는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IV.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따르면, 우리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 A. 진실함은 계시된 신성한 실재,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에 분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됨과 성실함이 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빛(요일 1:5)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를 하기 위한 것이다(요일 1, 요삼 1).

- B. 신성한 실재를 누린 결과로 인간적인 진실함과 성실함과 참됨이 산출된다 — 요 4:23-24, 요일 3:18, 요이 1, 요삼 1.
- C. 진실함은 인간의 참됨, 성실함, 정직함, 신뢰할 만함, 신실함이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미덕이며, 신성한 실재가 흘러나온 것이다 — 요 14:6.
- D.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진실함'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기 위하여, 신성한 실재가 사람에게 참됨이 되고 성실함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 E. 이 신성한 실재는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믿는 이들이 참여하고 마신 생수의 원천,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서 실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실재는 결국 믿는 이들에게 참됨과 성실함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요 4:10, 14, 23.
- F. 우리가 신성한 실재이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를 적시시어 우리의 개인적인 실재가 되셨으며, 우리가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실재가 되신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이다 — 요 4:23-24.